



세계 우수 3G 개척자들의 향연

3G Mobile World Forum 2005

세계 각국의 모바일 오퍼레이터, 솔루션 업체들의 3G 서비스 비전과 각 오퍼레이터들이 직면한 문제점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미래 전망을 논의할 수 있는 3G 모바일 월드 포럼이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일본 치바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 내부의 힐튼 도쿄 베이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몇 안 되는 모바일 관련 국제 컨퍼런스답게 각국의 오퍼레이터들과 솔루션 업체 및 유관기관들의 전문가들 약 350명 정도가 참석해 국제적인 행사의 위용을 떨쳤다.

글_이재영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콘텐츠사업팀 선임

3G 모바일 월드 포럼은 매년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모바일 콘텐츠를 포함해 다양한 모바일 관련 주제를 다루는 올해로 4번째를 맞은 국제회의이다.

각 나라의 유명한 오퍼레이터 및 벤더업체들, 관련 협회 등의 모바일 관련 최고 경영자 및 임원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몇 안 되는 국제적인 컨퍼런스 중의 하나이다.

세계 모바일 관련 전문가들 한자리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발표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비싼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등록자가 약 3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더라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3G 개척자들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밴드웨جن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행사인 듯하다. 이를 통해 모바일 관련 세계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정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포공항과 히네다 공항을 잇는 항공편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는 힐튼 도쿄베이 호텔까지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짧은 여정이었다. 하지만 미키 마우스, 도날드 덕, 구피 등의 캐릭터가 곳곳에 보이는 디즈니랜드를 지날 때는 여기저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 나머지 숙소에도 도착했을 때는 마치 장거리 여행이나 한 것처럼 이미 지쳐있었다.

도쿄만과 후지산이 보이는 숙소와 저녁이 되면 멋진 조명으로 아름답게 비치는 야외 풀이 지친 몸을 달래 주었지만 모든 행사가 영어로만 진행돼서 그런지 짧은 영어실력에 미리미리 발표내용을 공부해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통역없이 영어로만 진행돼서 그런지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선진화된 3G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행사를 일본에서 여는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을 일이다. 물론 디즈니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빼고서 말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유는 세계 모바일 관련 동향 및 정보 교류의 목

적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중 행사 규모와 기타 지역 참여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바일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이 행사에 비춰 타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각 오퍼레이터 별 GSM 3G화 진행상황 설명

이번 행사는 오프닝 워크샵과 메인 세션 및 주제별 세션으로 나누어져 매끄럽게 진행됐다. 오프닝 워크샵은 차세대 인터넷 IP 주소 체계인 IPv6에 대해 IPv6 Forum, Hexago, Japan Ipv6 Promotion Council, NTT communication 등에 의장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의 IPv4 주소체계의 포화상태 및 주소할당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그들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인터넷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 IPv6 주소체계를 도입해 네트워크 속도의 증가, 특정한 패킷 인식을 통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헤더 확정을 통한 패킷 출처 인증과 데이터 무결성 및 비밀의 보장 등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IPv6를 활용하면 3G 모바일, 홈네트워크, 게임, 가전기기 등 각각의 디바이스에도 고유의 IP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해서 인터넷을 좀더 쉽게, 간편하게 접속해 서로간의 통신을 효율적으로 가능케 하는 인터넷 유비쿼리티와 그 무한한 혁신 가능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날부터 3G에 대한 각국의 오퍼레이터 및 솔루션 업체들의 본격적인 포럼이 진행됐다. 메인 세션의 주된 발표자들을 보면 한국업체로서 SK텔레콤, KTF, 네오엠텔, LG전자가, 외국 업체로서는 Orange, HongKong CSL, MTC Vodafone Bahrain, Telkom Caribe, Celcom, Bouygues Telecom, KPN Mobile 등의 오퍼레이터들과 PalmSource, Symbian, Actix, 등의 솔루션 업체들, ICC, UMTS Forum 같은 관련협회 등이 참가했지만 발표자의 대부분이 오퍼레이터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사의 3G 비전, 현황 및 전략 등을 소개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고 오퍼레이터들의 형식이 획일적이어서 조금은 지루하고 단순했다.

내용 역시 각 오퍼레이터 별 GSM의 3G화 진행상황 설명이 주가 됐고, 각 나라별로 상이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역시 단순한 메시징 서비스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같은 데이터 서비스가 주 수익 모델이 되어 갈 것이라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별반 다를 것 없는 획일적인 발표내용 중에서 그래도 선진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KTF의 발표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SK Telecom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오퍼레이터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확장, 둘째, M-banking, Telematics, DMB등 신규 서비스 분야의 확장, 이렇게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KTF는 미리 준비한 다이나믹한 회사소개 동영상을 필두로 단말기 비용과 3G 어플리케이션이 W-CDMA 활성화의 큰 핵심이 될 것이고, 세계 각국의 오퍼레이터 간의 협력이 경제적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며 한국과 일본은 3G 솔루션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바와 같이 선진화된 3G 서비스 지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스폰서, 발표자로서 참여한 네오엠텔은 모바일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추세가 개인화 된 모바일 사이버 공간, 다이나믹한 GUI, 쌍방의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폰 기능의 융합이라고 정리하면서 자사의 모바일 그래픽 솔루션을 소개했다.

3G 모바일 폰도 오픈OS로 진화

중간중간 오퍼레이터들의 발표 속에서 PalmSource, Symbian 같은 유명 솔루션 업체의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PalmSource는 entry level phone→camera phone→feature phone→fashion phone→basic smart phone→smart phone 에 이르는 진화과정을 설명하면서 3G 네트워크 상의 기반이 되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 있는 3G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 오픈OS폰이 그 가치사슬을 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ymbian은 삼성의 500만화소 카메라폰, LG의 600만화소 카메라폰을 예로 들며 무한한 디바이스의 진화는 소비자들의 행동과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켰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자사의 멀티미디어 모바일 플랫폼을 소개했으며 2006년까지는 기존의 모바일 OS보다 대중시장을 목적으로 한 오픈OS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싸질 것이라며 이와 같은 오픈OS 채택은 폰 메이커, 오퍼레이터, 채널 파트너 등의 모든 사업



자들의 가치사슬을 규모경제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우리나라에서(?)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서 여러 나라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높은 관심이었다.

ICC의 Maria Livanos Cattauri가 발표시 말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정부정책결정 및 지원으로 다른 국가보다 먼저 3G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미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SMS같은 단순서비스 중심의 유럽, 미국보다 한국 일본은 링톤, 게임 등 비메시징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을 통해 3G의 미래를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needs를 충족시키기에는 이번 3G Mobile World Forum은 훌륭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모바일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형성의 밴드웨건 역할로서는 훌륭히 수행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이번 3G Mobile World Forum을 주최한 MarcusEvans의 production director와의 미팅을 통해서도 한국에서의 국제 모바일 컨퍼런스의 성공 가능성을 엿보았다. 우리는 모바일 콘텐츠 및 솔루션 부분을 특화해 발표자와 주제 선정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며 더불어 정보통신부의 IT839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 DMB, 홈네트워크, WiBro, Telematics 등의 다이나믹한 전시 및 시연으로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야 할 것이다.

1월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었다. '휴대폰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을 주시해라'. 단순히 세계 5대 핸드폰 제조회사에 삼성과 LG, 두 업체가 있어서 만은 아니다. 양질의 좋은 콘텐츠와 솔루션이 있기에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 훌륭한 콘텐츠와 솔루션의 미래를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도록 이제 모바일 밴드웨건의 기수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돌리자. ●